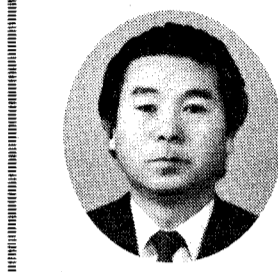


◇..... 성인병의 호발 연령에 이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혹의 나이에 접◇
 ◇..... 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적이고, 이성적인 면에서는 스스로 설수 있는 나◇
 ◇..... 이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혹의 나이에 이른 다면 인생관, 종교관, 세계관이 서◇
 ◇..... 있어 나름대로 생의 좌표가 분명해야하고 생의 성숙기에 접어 들었으므로 일◇
 ◇..... 도 많이 해야할 시기라고 본다. 그런데 의학적인 면에서는 성인병이란 탈갑지◇
 ◇..... 많은 병이 찾아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의도◇
 ◇..... 가 깊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성인병 하면 고혈압, 당뇨병, 악성위장암, 지◇
 ◇..... 질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혈관계 질환을 들 수 있겠으나 갑상선질환 역시◇
 ◇..... 성인병질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이다. 특히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장년층 이◇
 ◇..... 후에 발생할 경우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 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전형적인 갑상선기능항진◇
 ◇..... 증 즉 그레이브스병은 안구돌출, 갑상선종, 심계항진등과 같은 세가지 주징을 동◇
 ◇..... 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안구돌출만 있고 갑상◇
 ◇..... 선종은 없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심계항진, 도한, 체중감소가 주요 증◇
 ◇..... 상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체중증가를 보이는 예도있다.◇

장년층 이후에 발생하는 갑상선기능항진은 첫째 소화기계 질환으로 오인 하기 쉬운데, 이들이 호소하는 주요증상은 식욕부진, 소화불량, 체중감소가 극심 하기 때문에 위악성종양으로 오인 하여 위내시경검사나 위X-선촬영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원인 없이 체중감소가 극심 할때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비전형적인 형을 의심하여 갑상선기능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증상·예방및 치료대책을 중심으로

둘째로 무기력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이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며 생활에 활기가 없고 기분이 늘 저조한 상태에 있으므로 함간에서는 속칭 화병으로 부르기도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는 갑상선호르몬 과잉생산, 확실치는않으나 혈중 카테콜아민의 증가로 인해서 당질대사에 이상을



李 鍾 錫

서울光惠醫院長
한양의대내과
외래임상교수

초래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혈당이 간에 글라이코젠 상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해당작용이 촉진 되므로 뇨중에 당이 출현하게 된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당뇨병 이라기보다도 당의 해당작용의 촉진과 장에서의 당흡수 촉진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당뇨병과는 구별해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장년층이후에 뇨중에 당이 출현 할경우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한번쯤 의심해야한다. 또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비전형적인 형으로 하지만의 마비를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하지만의 쇠약으로 인해서 걸지를 못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 하면 자전거의

지에 마비가 온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의 치료로는 경구 또는 비경구적으로 칼리움을 보충하는 길도 있겠으나 갑상선중독증 자체가 소실되면 마비증세는 자연히 소실 되므로 항갑상선제제를 복용시켜야 한다. 진술한바와 같이 성인에서의 기능항진증의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 즉 악성, 또는 만성 소모성 질환을 방불케 하는 증세, 당뇨병, 노이로제, 하지마비 등등의 증세를 보이는 고로이 것을 염두해 두고 환자를 대

해야 할 줄로 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이 질환에 대한 자세한 병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순환기계의 이상에 의한 질환으로 오인 하였던 때도 있었다. 심계항진, 빈맥, 심방세동, 심부전, 기능성잡음, 혈압상승등의 순환기계가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끔씩 질환으로 오진 되는 수가 일수였다. 이와같은 모든 증상은 갑상선호르몬 과잉분비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교감신경 흥분에 의한 증상과 비슷하다. 갑상선질환은 기능항진증, 저하증, 갑상선결절 할것없이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진바 아니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월경이란 특수한 호르몬계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하수체 갑상선축에 있어서 호르몬의 역동화적인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남성에서 보다 여성에서 갑상선질환이 많이 발생 하는것으로 추측해 본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갱년기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갱년기란 일종의 노쇠현상이며, 생리적인현상 이기는 하지만 호르몬의 역동화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게는 갑상선에도 변화가 온다. 갱년기 여성에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 오를 다든가, 무안당하는것 처럼 느낀 다든가,

성인병과 갑상선 질환

장년층 이후에 다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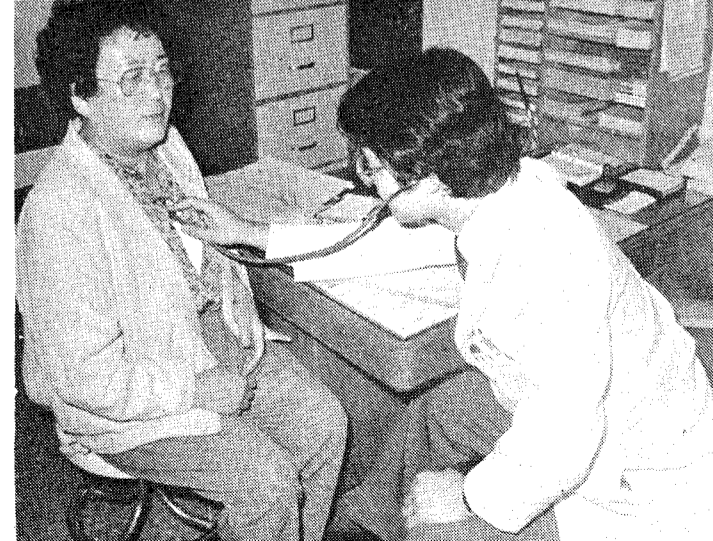
은 대개의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의미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조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에 접어 들면 혈중에 스트로젠감소, FSH증가, 갑상선호르몬(T₃, T₄, 갑소) TSH증가 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질환중에서 갑상

뚜렷한원인없이 극심한体重감소경우의심을 수시로血中TSH측정으로事前에 예방해야

페달을 밟지 못한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환자에게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뚜렷한 증세는 보이지 않고 혈중갑상선호르몬만 증가 한다든지, 혈중에 칼리움(K⁺)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는 수가 있고 심전도상에서는 T-파가 낮다. 이와 같은 환자에서는 이온화 칼리움이 세포내로 들어가 혈청내에 칼리움이 감소 하기 때문에 저칼리움증으로 인해서 사

열감이 있는것은 혈중 에스트로젠 감소 때문에 오는 혈관 확장증세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에스트로젠 감소는 갑상선호르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혈중 TSH치를 측정해 보면 알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혈중 TSH치가 정상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다. 혈중 TSH가 상승한다는것

선염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증명하는데 손쉽고 가장 예민한 검사로는 혈중 TSH치를 측정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년전에 영국 캠브릿지대학에서 개최된 영국 주내분비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장년층 이후의 여성에서 측정된 혈중 TSH치의 상승은 갑상선염은 의심해야 한다는 인상적인 보고 내용이였다. 성인병이란 내분비학적인 면에서 보면 호르몬분비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체내 내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의들은 고혈압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노이로제라고 부르기도 하나 호르몬학적인 면에서는 레닌, 안지오텐진계의 이상과 카테콜아민과 알로스테론의 이상분비라고 할 수 있으며 당뇨병역시 인슐린 분비 이상과 Counter regulatory 호르몬과의 불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지질대사의 이상으로 맥관계에 콜레스테롤의 과잉축적으로 인해서 뇌졸중은 물론 관상동맥의 혈류차단에 의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진술한바와같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갑별진단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뚜렷한 원인없이 격심한 체중감소를 보이거나 '尿에 당뇨가 보일때' 일단 갑상선질환을 의심해야 할것이다. (진료사진은 기사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흡연은 癌 등 치명적 질병의 원흉

美월 드워치 研究所, 흡연 관련 死亡事例 분석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귀머거리, 범어리도 아니면서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이 입으로 나올때는 마음속의 그말이 아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렇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빼앗아 갔는가 후두암에 걸려 후두적출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이들을 치료한 의사들은 담배를 제일의 원흉으로 지목한다.

그러면 담배는 왜 위험한지 흡연의 위험과 비흡연자의 피해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세계에서 흡연으로 매년 죽어가는 사람은 1백만명을 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림하고있다. 그러나 위싱턴의 월드워치 의학연구소는 흡연관련 사망자수를 연간 2백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드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歐美지역의 경우 사망자의 5분의1은 흡연과 관련된 병으로 죽는다. 전세계적으로 흡연에 당장 어떤 해를 박지 않으면 20세기말에 가만 폐암으로 말미암은 사망자수가 50%나 늘어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경고한다.

흡연자나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대부분은 흡연의 해독을 『강건너불』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기지는 않는데 많은 문제가있다.

국제소비자연맹(IOCUC)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가 폐암 후두암구강암 식도암 방광암췌장암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흡연자의 질병별 사망위험증가율은 다음과

세계적으로 연간 1백만 ~ 2백만명이 흡연관련 死亡 피동적 흡연 피해 늘어: 비흡연자 보호운동 활발 발전개

같다. (낮은비율은 하루 1갑이하의 흡연자 높은 비율은 하루 1갑이상의 흡연자).
 △폐암=7백%~1천5백% △후두암=5백%~1천3백% △구강암=3백%~1천5백% △식도암=4백%~5백% △방광암=1백%~3백% △췌장암=1백% △신장암=50% △관상심장병=70%~3백% △氣腫 및 만성기도장애=1천%~2천% △위궤양=1백%.

통계에 非吸煙者의 피해

따르면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때 연기의 약 25%만을 들며마시고 75%를 공중으로 뿜어내는데 흡연했던 연기의 절반가량을 호흡을 통해 다시 밖으로 토해 내기때문에 결국 90% 정도를 공중에 불어남에게 해를 준다는데. 따라서 비흡연자도 결국은 피동적 흡연자가 된다. 월드워치보고서에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미국에서만도 연간 5천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하고있다.

비흡연자의 피해는 눈이 맵고 옷에서 담배냄새가 나는등의 불쾌감 이외에 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건강상의해를 받는다. 수동적 흡연으로 가장큰 피해를 받는것이 어린이와 태아이다.

임신부의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산산 유산 결함아분만저체중아분만등이며 집안의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흡연자일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기관지염 폐렴 발생률이 훨씬 높고 어렸을때어른들의 흡연때문에 폐기능에 영향을 받은 어린이가 커서 성인되어 스스로 담배를 피울때는 더욱 큰 문제를 안게된다.